아모스의 열국에 대한 심판

Amos' Prophecies against the Nations

신 득 일*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정경의 상태 | 264
2. 본문비평 | 266
3. 본문형태와 구조적 특징 | 268
4. 주석적 설명 | 271
   a. 아람에 대한 심판(1:3-5) | 271
   b. 블레셋에 대한 심판(1:6-8) | 274
   c. 두로에 대한 심판(1:9-10) | 276
   d. 에돔에 대한 심판(1:11-12) | 279
   e. 암몬에 대한 심판(1:13-15) | 280
   f. 모압에 대한 심판(2:1-3) | 282
5. 결어 | 284

요약

아모스의 열국에 대한 심판

아모스의 책 전반부에 배치된 열국에 대한 심판예언은 독자에게 궁금증을 안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정당성을 알리고 자신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데 유용한 문학적 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열국의 심판예언은 단순한 수사적인 기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본문에서 거론된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유다와 인접한 국가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학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람, 에돔, 암몬은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학대했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블레셋, 두로, 모압의 경우는 학대 대상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결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유다 백성을 학대한 결과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예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창 12:3a).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을 잔혹하게 학대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이자 경고가 된다.

---

* 신득일 교수는 부산에서 출생하여 고신대학교와 동 대학원(M. Div & Th.M 과정)을 졸업하고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서 구약학(Th. Drs)을 전공하였으며,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스웨스트 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Ph.D.)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객원교수로 있었다(2004). 저서로는 『구약히브리어』, 『성경길라잡이』, 『구약정경론』가 있으며, 역서로는 『성경지리입문』,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사』, 『이집트와 구약역사』등 현재 구약학자로서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Amos' Prophecies against the Nations

주요어
아모스, 열국심판, 주석, 아브라함의 약속, 예언신탁

Abstract

Amos' Prophecies against the Nations

Prof. Dr. Deuk-Il Shin

The readers may be curious to know why prophecies against the nations made up the first major unit of the Book of Amos (1:3-2:3). Certainly the literary arrangement would be useful to give notice of rightfulness of imminent and unavoidable judgement to Israel. However, the oracles against the nations is not to be considered as a mere rhetorical skill which is called a rhetorical entrapment. The gist of the text is that the nations surrounding Israel and Judah will pay the price for their atrocity to the covenant people of God. Aram, Edom and Ammon maltreated Israel and Judah but the referents of Philistines, Tyre and Moab remain obscure. Yet, the fact that these nations resulted in objects of divine judgement shows that they did not violate universal law such as human rights but committed sins against Israel and Judah. Thus, the oracles against the nations are rooted in God's promise to Abraham (Gen 12:3a). Yahweh punishes the nations that treat his people cruelly. This is a comfort as well as a warning to God's people.

Keywords | Amos, judgement, exegesis, Abrahamic promise, oracles

아모스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서론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치와 내용이 독자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 앞에 제시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정당하게 파악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은 물론 아모스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본고는 아모스 전반부에 나타난 이방나라들에 대한 아모스의 심판예언을 계시사적인 주석을 통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정경의 상태

본문의 정경성에 대한 문제는 주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여섯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역사와 문헌과 관련된 것이다. 크게 나눈다면 이 예언이 아모스와 동시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포로 시대나 포로 후 시대의 자료를 삽입한 것인가로 요약된다.

하퍼(Harper)는 아모스의 책 전체가 포로 전에 있었던 자료와 포로 후기에 생성된 다양한 자료로 형성되었다고 한다.[1] 특별히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본문(1:3-2:3)은 두로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포로 후기의 역사적 자료가 삽입되었고, “야웨의 말이니라”와 같은 표현이 독자가 호감을 가지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로 이후에 임의로 삽입되었다고 한다.[2] 그 이후

1) H.R. Harp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Amos and Hosea*, New York: Scribner, 1019, cxxx-cxxxiv.
2) Ibid., cxxxi, cxxxiii.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른다.[3] 이 점에 대해서 하란(M. Haran)은 역사적 배경과 언어와 내용에 근거하여 그 예언의 아모스 선지자의 기원을 인정하여 이 본문은 후대의 삽입이나 후대의 산물이 아니라 여로보암 시대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본문이 속한 '문학적 단위(1:2-2:6)는 아모스의 초기 예언신탁 중에 하나'라고 한다.[4] 특별히 하젤(Hasel)은 현대문학적인 방법을 지지하면서 역사문헌비평과 전승사비평이 적절한 해석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통일성있는 문학적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5]

정경의 상태에 대한 비평가들의 다양한 입장은 본문에 제시된 모든 신학적 주제가 신명기와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이른 시기에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의 예언이 후대삽입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유대공동체의 신앙의 내용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예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자신이 직접 예언한 것이라고 해도 이 예언이 언제 책으로 편집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문서의 기원을 주로 구전에 호소하는 전승사학파에 속한 벤첸(Bentzen)은 본문의 편집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기소하기 전에

3) 폴은 그의 논문에서 본문을 다양한 전승에서 편집된 것으로 보는 비평가들의 글들을 전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다. S.M. Paul, "Amos 1:3-2:3: A Concatenous Literary Patter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0 no. 4 (1971) 397; O. Eissfeldt,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Tübingen: J.C.B. Mohr, 1976, 540.

4) M. Haran, "The Rise and Decline of the Empire of Jeroboam ben Joash," *Vetus Testamentum* 17, 1967, 172-78. 이 외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다: J.H. Hayes, *Amos,* Nashville: Abingdon, 1988, 52 – 55; F.I. Andersen and D.N. Freedman, *Amos,*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213, R.B. Dillard and T.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375.

5) G.F. Hasel, *Understanding the Book of Amos*: Basic Issues in Current Interpret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57-69.

적대적인 이웃나라들을 기소하면서 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자신이 구두로 배열했다고 한다.6)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이 구전에 의존해서 후대에 문서 전승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물론 벤첸의 말대로 아모스의 예언이 아모스에 의해서 직접 기록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의 주장도 가정에 불과하다. 본문은 아모스에 의해서 직접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또 삼인칭으로 묘사된 특정한 부분(7:10-17)은 아모스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당대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다.

2. 본문비평

아모스 전체의 본문문제는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 역 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7) 그렇지만 열국에 대한 심판예언과 관련된 상이한 본문은 내용상 심각할 정도의 오역은 아니고 대부분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다.

4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의 *hᵃḏāḏ* 을 잘못 읽어서 *Ader*로 번역했다.

5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의 *yōšēḇ* 을 *kataikountas* (거민들)로 번역했다. 이것은 축어적으로 '앉은 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의미상 '왕'을 뜻한다.8) 또한 이 단어를 거민으로 번역할 때 다음에 나오는 '규를 잡은 자'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

---

6) A. Bentze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Copenhagen: G.F.C. Gad Publisher, 1961, 141.

7) A. Gelston, "Some Hebrew Misreadings in the Septuagint of Amos," *Vetus Testamentum* 52 (2002) 493-500.

8) J.P. Lettinga, "Het gezeten-zijn van koning en rechter," *Reformatie* 32 (1956-57) 360.

5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의 *'awęn* 을 On으로 번역했다. 아마도 히브리어 자음 *w* 를 모음문자로 읽음으로써 생긴 번역일 것이다. 물론 이런 도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헬라시대에 헬리오폴리스를 말하는데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는 도시이다.

5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의 *qīrā* (고유명사 'Qir'의 방위격)를 *qārā* (부르다) 동사로 잘못 읽어서 *epiklētos* (called)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단어는 1세기 이전에는 '부르다'란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나그네'란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9)

6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 *šᵉlēmā* (전체)를 자음이 똑같은 *šᵉlōmō* 로 착각해서 *Salōmōn* (솔로몬)으로 오역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포로'라고 번역하여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8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 *yāwē 'ăḏōnāi* 를 그냥 *kurios* (주)라고 번역함으로써 어느 단어를 번역했는지 모호하게 만들었다.10)

11절, 칠십인 역은 히브리어 단어 *ręḥęm*을 문자적으로 *mētran* (모태)이라고 번역하고 *epi gēs* (on earth)를 덧붙였다.

11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 *lā'ēḏ* (forever)를 *eis marturion* (for a witness)이라고 번역했다.

15절, 칠십인 역은 마소라 본문에 없는 *hoi hiereis autōn* (their priests)를 덧붙였는데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지하는 도비야 가문을 의식한 당시의 반 사마리아적인 편견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11)

---

9) W.E. Glenny, *Finding Meaning in the Text*: Translation Technique and Theology in the Septuagint of Amos, Leiden: Brill, 2009, 157.

10) Stuart는 칠십인 역의 번역자가 *ăḏōnāi* 를 번역하지 않았다고 한다. D. Stuart,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1,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87, 307.

11) Glenny, *Finding Meaning in the Text*, 160.

3. 본문형태와 구조적 특징

아모스의 열국에 대한 심판예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이웃인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절정을 향해서 점진하는 패턴을 띠고 있다. 이 점진적 이동은 외국인(아람, 블레셋, 페니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혈연관계가 있는 나라(에돔, 암몬, 모압)으로 향하고, 다음으로 자매관계에 있는 나라(유다)로 간다. 이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된다.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매우 통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12]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이라는 점을 여덟 번째 예언이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열국의 죄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덫에 걸려드는 느낌을 갖게 하는 수사법이다. 올터(Alter)는 이런 기법을 '수사적인 함정'이라고 했다.[13]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은 특정한 양식을 갖고 있다: 1) 서론적인 메시지(야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심판의 당위성(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3) 특정 범죄의 내용; 4) 심판의 내용 선언; 5) 결어양식(야웨의 말이니라). 아모스는 이렇게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두로와 에돔의 심판에는 결어양식이 없음). 여기서 변화된 것은 각 나라의 이름과 그들이 범한 죄와 심판의 내용뿐이다.

---

12) Cf. R.B. Chisholm, Jr., *Interpreting the Minor Prophets*, Grand Rapids: Academie Books, 1990, 74.

13) 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144. Partlow는 여기에 대한 고전적인 예로 다윗을 대면하는 나단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삼하 12:1-14). J.A. Partlow, "Amos's Use of Rhetorical Entrapment as a means for Climatic Preaching in Amos 1:3-2:16," *Restoration Quarterly* 49 no. 1 (2007) 29.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모스의 예언에 나타난 심판의 이유는 모두 다 한결같이 "서너 가지 죄"로 나타나 있다. 우리말에서 '서너 가지'란 말은 좀 불명확한 수를 가리킨다. 로스(Roth)는 이런 패턴의 두 숫자가 구약과 고대근동의 산문과 시문에 종종 나타나며 한정적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약간 비한정적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 패턴을 동의적 혹은 종합적 병행법으로 보고 그 병행법의 성격과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한다.[14] 바이스(Weiss)는 이 두 숫자가 시문에서 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숫자에서 뒤의 숫자가 강조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두 숫자를 병행으로 보지 않고 루터와 칼빈이 지적한 대로 이 두 숫자가 합해서 '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완전한 죄를 뜻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일곱가지 죄를 예를 들었다.[15] 그렇지만 열방의 죄는 그렇게 많이 나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분명히 이 숫자들은 문자적이라기 보다는 상징성이 많아 보인다. 즉 '셋'은 온전함을 뜻하고 '넷'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6]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 각 나라의 범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의 때가 찼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각 나라 마다 언급된 *lō ʾᵃšībęnnū*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해석문제이다.[17] 여기서 접미사에 해당하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14) W.M.W. Roth, "The Numerical Sequence x/x+1 in the Old Testament," *Vetus Testament* 12, 3 (1962) 303-04, 311.

15) M. Weiss, "The Pattern of Numerical Sequence in Amos 1-2: A Re-Examina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6, 4 (1967) 419-20.

16) B.K. Smith & F.S. Page, *Amos, Obadiah, Jonah*, New American Commentary 19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47.

17) 마소라 본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ʾᵃšībęnnū*, hi. ipf-energicum, 1, c. sg. + suf. 3. m. sg.

진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심판의 위협(Wolff); 분노(Knierim); 야웨의 목소리(Hayes, Smith & Page); 심판(Gelderen, Garrett) 등.[18] 이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일일이 따져보면 석연찮은 부분도 있다.[19]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레(Barré)는 탈굼 역과 칠십인 역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경의 다른 용례와 고대근동문헌에 근거하여 '그것'을 앞에 언급된 나라의 지명을 그 선행사로 본다.[20] 그러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번역하게 된다. 이것은 언약관계를 끝내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만 이 해석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국이 여호와의 봉신이 될 때 가능하다. 이 대명사의 선행사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lō ʾašībęnnū* 란 표현은 법적인 문맥에서 나온 것으로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심판의 성격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모종의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어투로 쓰였다.

---

18) Cf. H.W. Wolff, *Joel and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the Prophets Joel and Amo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153-54; Knierim, "'I will not cause it to return' in Amos 1 and 2," in G. W. Coats and B. O. Long (ed.), *Canon and Authority: Essays in Old Testament Relig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77, 172-75; J.H. Hayes, Amos: The Eighth-Century Prophet,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70-71; C. van Gelderen, *Het boek Amos*, Kampen: Kok, 1933, 17; D.A. Garrett, *Amos*: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08, 24-25.

19) '위협'이라는 볼프의 견해는 그가 제시하는 고대근동문헌과 성경본문이 아모스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 '분노'를 제시하는 크니림의 견해는 본문 밖에서 의미를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2절에 나타난 '야웨의 목소리'는 그것의 선행사로 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모든 대명사의 선행사를 2절에서 찾는 것은 어색하다. 막연한 '심판'으로 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선행사가 없다는 것이다.

20) M.L. Barré, "The Meaning of *l' 'šybnw* in Amos 1:3-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4 (1986) 611-31.

4. 주석적 설명

a. 아람에 대한 심판(1:3-5)

아람은 이스라엘과 치룬 전쟁에서 드러낸 극도의 잔인성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 수도 다메섹으로 언급된 아람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요단 동편에 살던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로 분류된 길르앗 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압제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부싯돌로 된 타작기가 아니라 '철 타작기'를 은유로 사용하여 아모스는 철기문명을 살아가면서 기술문명이 앞서있는 아람을 상기시키면서 그 야만적인 정복을 부각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엘리사와 동시대인이었던 하사엘의 정복을 가리키는데 주전 9세기 후반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왕하 8:7-15; 10:32, 33; 13:7). 물론 아모스 당대의 사건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21] 구약(왕하 13:7; 사 41:15; 미4:12; 합 3:12)과 고대 근동문학은 철저하고도 극심한 군사적 정복을 표현할 때 타작한다는 표현을 쓰곤 했다.[22]

아람의 잔인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불이 사용되었다(1:4a).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전쟁을 통한 파괴로 나타날 것이다. 성경과 고대근동에서는 불이 종종 왕실 군대 지도자의 파괴적인 능력을 상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할 때 고대

---

21) Wolff, *Joel and Amos*, 155.

22) '타작하다'에 해당하는 아캇어 *dâšu* 는 은유적으로 쓰일 경우 나라와 사람을 목적어로 받는다. 나라에 쓰인 경우는 티글랏빌레셀 III에게 적용되었다: "나는 철 썰매로써 Bit-Amukkani를 타작했다. 사람에게 쓰인 경우는 아슈르바니팔에게 적용되었다: "모든 대적을 타작하는 자." Cf. S.M. Paul & F.M. Cross,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Amo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47.

시에 나타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모압을 삼킨다는 표현은 아모리 왕 시혼과 그의 군대의 파괴적인 힘을 묘사한 것이다(민 21:27-30). 이사야 시대의 앗수르 왕 산헤립도 자신을 '저항하는 자를 소멸하는 화염'이라고 했다.[23] 여기서 폴(Paul)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가나안 신화에 묘사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삼키는 불로써 싸우시는 전사의 이미지나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고 열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24]

아람에 대한 심판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집'과 '벤 하닷의 궁궐들'이라고 칭한 것은 하사엘의 왕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하사엘의 왕위를 고대의 다메섹 왕실 이름을 가진 아들 벤 하닷이 계승함으로써 왕조를 창건했다(왕하 13:3, 24). 이 하사엘과 벤하닷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아스의 시대이지만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람을 통치자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아람의 왕조는 오랜 세월동안 '하사엘과 벤 하닷의 집'이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25] 이 왕조에 대한 심판으로서 여호와께서 왕궁과 그 요새들을 사를 것이다(1:4b). 여호와께서 다메섹의 문빗장을 꺾음으로써 시리아 수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왕을 처치하실 것이다(1:5). 여기서 '거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yōšēḇ (앉은 자)은 '통치자' 또는 '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아웬의 통치자와 벧에덴의 규 잡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병행을 이루는 것으로 합당해 보인다. '규 잡은 자'란 왕권을 휘두르는 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26]

---

23) D.D. Luckenbill, *Ancient Records of Assyria and Babylonia*, Lo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Ltd., 1989, 2:115, par. 233.

24) Paul & Cross, *Amos*, 48.

25) Cf. Wolff, *Joel and Amos*, 156.

26) 개역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대신이 임금을 알현할 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손에 쥐던 패를 말한다. 그래서 이 번역은 적절하지 않다. '규'라는 말은 옥으로 만든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 천자가 제후를 봉하거나 신을 모실 때 쓴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용도를 볼 때 '규'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웬 골짜기’란 말은 ‘악의 계곡’이란 뜻인데 아람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벧에덴’에도 적용되는데, 그 뜻은 ‘쾌락 또는 사치의 집’인데, 어조가 풍자적이다. 5절에 나타난 심판예언은 세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다메섹과 아웬과 벳 에덴에 관한 각각의 내용이 진행하는 병행법으로 쓰였다면 아웨과 벧 에덴은 다메섹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각각 독립적인 병행법으로 쓰였다면 이 명칭이 단순히 다메섹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웬은 칠십인 역에서 언급된 ‘온’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집트의 태양숭배지 헬리오폴리스가 아니라 시리아의 헬리오폴리스로 볼 수 있다. 이곳은 다메섹 북서쪽에 있는 Baalbek 근방일 것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벧 에덴은 아캇어 문헌에 나오는 *Bit-Adini* 와 일치하는 것 같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둑에 있는 도시로서 아모스 시대에 중요한 도시였다.[27]

다음 단계의 심판은 이곳의 통치자를 처치한 후에 아람의 거민들은 포로가 되어 ‘키르’(Qir)로 유배된다는 것이다. 아모스는 이 장소를 원래 아람사람들이 여기서 왔던 곳으로 이해했다(9:7). 그러나 그 위치는 분명치 않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본거지로 돌려보냄으로써 아람의 자랑스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신 28:68). 이 심판의 메시지는 주전 732년에 성취되었는데 그때 앗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정복하여 거민들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다메섹 왕 르신을 죽였다(왕하 16:9).[28] 하나님은 한때 아람 사람들을 길(우물, 함정)에서 구해주셨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다시 그 곳으로 돌려보내신다.

“야웨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으로

---

27) D.A. Hubbard, *Joel and Amo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25,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9, 138.

28) Cf. Chisholm, *Interpreting the Minor Prophets*, 78; F.E.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ume 7: Daniel and the Minor Prophe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6, 284.

그 심판의 예언형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아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b. 블레셋에 대한 심판(1:6-8)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서 가사가 죄를 범한 유일한 블레셋 도시로 언급되었지만 심판에 대한 위협은 다른 세 도시에도 적용되었다. 마치 다메섹이 아람의 주요 도시라서 거기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나서 온 거민이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가사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언급되었다.

가사의 죄는 그 거민들의 상업적 목적과 이권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1:6). 가사는 해양민족 중 하나인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다섯 도시 중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수도였다.[29]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도 상업적,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도시였다. 그들은 여기서 인신매매의 죄, 그것도 전체 거민을 에돔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죄를 지었다. 노예들은 군인들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습격하거나 전쟁을 치루면서 사로잡은 남녀, 어린이와 같은 전쟁포로였을 것이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다. 에돔은 이들을 구리광산의 노동에 투입하거나 또 다른 곳에 팔기 위해서 쌌을 것이다. 아람은 인간의 삶을 경시하고 잔인하게 짓밟았는데 비해서 블레셋은 인간의 가치를 경멸했다. 아모스의 관심은 그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30] 노예무역을 통해서 고귀한 인권이 유린되는 것같이 말이다. 그러나 이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29) H.J. Katzenstein, "Gaza," in *Anchor Bible Dictionary* 2, 1992, 912.
30) Wolff, *Joel and Amos*, 158.

아모스는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31] 아마도 블레셋과 인접한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취약할 때 (왕하 13:7) 격리된 국경에서 습격이 일어났을 것이다.[32] 블레셋은 과거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을 헬라에 팔기도 했다(욜 4:6). 즉 인간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한 것을 보응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라는 것이다.

블레셋의 심판은 아람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불을 보내시어 가사 성을 불사르는 것이다(1:7).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군사적 공격을 뜻하며, 이때 하나님의 불이 가사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은 가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스돗, 아스글론의 왕을 제거하시겠다고 위협하신다(1:8a). 여기서 '거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yōšēḇ*)는 '앉은 자'라는 뜻으로 왕을 의미한다.[33] 즉 아스돗의 통치자는 '앉은 자'로 묘사했고, 아스글론의 왕은 '홀을 잡은 자'로 표현함으로써 병행을 이루었다. 가사와 같이 아스돗도 연안도시인데, 가사에서 북쪽으로 28km 지점에 있다.[34] 아스글론의 그 중간지점에 있다.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라는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히브리식 표현이다. 이제 에그론 쪽으로 그 능력을 돌리겠다는 말이다. 그 결과로 재난에서 남은 블레셋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 거민은 아무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에 대한 심판에는 아람과 같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없다. 그것은 사람을 노예로 판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율법이 적용된

---

31) Cf. S.K. Lee, *Election and Ethics*: Ethical Basis of the Prophecy of Amos, Seoul: Dongbang, 2005, 117.

32) Stuart, *Hosea-Jonah*, 312.

33) Cf. A.R. Hulst, "šāḵan," in E. Jenni and C. Westermann (ed.),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1997, 1329.

34) A.C. Myers, *The Eerdmans Bible Diction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87, 92.

것으로 보인다(출 21:16). 하나님은 한 나라의 수호신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역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이 노예매매를 한 것만큼이나 철저했다. 여기서 블레셋 다섯 도시 중 가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곳이 유다에 편입되어서 더 이상 독립된 도시로 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대하 11:5-10). 여기에 대한 증거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서 가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슥 2:4; 9:5-7; 습 5:7). 블레셋의 가사는 아모스의 예언이 있은 지 약 삼십 년 후에 앗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 Ⅲ에 의해서 주전 734년에 점령당했다. 아스돗은 주전 712년 앗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르곤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이때 에그론도 점령당했다. 블레셋은 바벨론과 페르샤의 지배를 거치면서 그 지역에서 문화와 언어에서도 블레셋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35] 택한 백성에 대한 반인륜적인 행동이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

c. 두로에 대한 심판(1:9-10)

열방에 대한 다른 예언과는 달리 페니키아는 두로만 언급되었다. 주전 8세기 중반은 엣바알(Ethbaal)이 통치하던 역사상 두 번째 황금시대였다. 이때부터 주전 701년 산헤립이 시돈의 지위를 독립적으로 격상시키기까지는 시돈은 두로와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구성하고 있었다.[36] 그 도시는 방대한 무역제국의 심장부로서의 그 전략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부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겔 26-28). 그 무역활동 중의 하나가 노예매매였다. 이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두로에 대한 고소는 가사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whole captives)를 에돔에 판 것'은 가사와

35) H.J. Katzenstein, "Philistines," in *Anchor Bible Dictionary* 5, 236-238.
36) H.J. Katzenstein, "Tyre," in *Anchor Bible Dictionary* 6, 688.

같아 보인다. 그렇지만 두로는 상인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같이 전쟁과 같은 습격을 통해서 한 마을이나 공동체를 포로로 삼은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들은 중개업을 통하여 이 일을 한 것 같다.[37)]

블레셋 만행과 또 다른 점은 두로의 행위는 배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임무를 저버렸다는 뜻이다(시 105:8; 렘 14:21). 이것이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는 분명치 않다. '형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파트너를 가리킨다(왕상 9:13). 또한 개인적이라기 보다는 국가간에 맺어지는 것인데 주종간이 아니라 평등조약이다. 이는 충성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친밀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고대 근동에서는 관례적으로 쓴 것이다. 애굽의 람세스 Ⅱ와 히타이트의 핫투실리스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서로가 '형제관계'라고 언급했다.[38)] '형제의 계약'은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이다. 아모스 시대에는 국가간의 협정은 일반적이었다. 그 전에는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과 언약을 맺었다(왕상 5:12). 또 아합이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페니키아가 협정을 맺었을 것이다(왕상 16:31). 그 후 계속적인 협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 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계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인 것 같다.[39)]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두로의 죄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40)] 노예무역은 고대사회에 만연된 관행이었다. 이들의 죄는

---

37) R.R. Lessing, *Amo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9, 128.

38) J.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199: "보라 하티의 대왕 핫투실리스는 이집트의 대통치자 우세르-마아트-레 세텝-엔-레와 오늘부터 영원히 우리 사이에 좋은 평화와 형제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세우노라. 그가 나와 형제관계에 있는 한 그는 영원히 나와 평화를 누리고, 내가 그와 형제관계에 있는 한 나는 영원히 평화를 누린다."

39) Cf. J. Priest, "The Covenant of Brother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4 no. 4 D (1965) 400-06.

계약을 저버리고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물질적 이익을 얻는 동기로 본 것에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매매한 것을 더한다.

두로의 죄의 결과로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두로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두로는 함락되었다. 앗수르는 두로를 네 차례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티글랏 빌레셀 III(주전 728-7), 살만에셀 V(주전 727), 산헤립(주전 701), 에살핫돈(주전 677).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는 십삼 년 동안 두로를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주전 572년에 패배시켰다.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는 주전 332년에 육지의 두로를 파괴한 잔해로써 섬까지 연결하는 약 팔백 미터 정도되는 제방을 쌓아서 두로를 철저히 파괴했다.[41] 이 예언에서는 앞의 두 나라와는 달리 페니키아나 다른 도시로까지 심판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고, 또 두로에 대한 예언에서 결어 "야웨의 말이니라"가 빠진 것도 특이하다.[42]

---

40) 폴과 크로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었다고 해도 그의 기소는 그가 실제로 다른 나라를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Paul & Cross, *Amos*, 61.

41) D.R. Edwards, "Tyre in the Greco-Roman Priod," in *Anchor Bible Dictionary* 6, 690.

42) Limburg는 "편집자가 이 책의 각 단원에서 칠 이나 다중적 일곱 개의 신적 선언 양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양식이 빠졌을 것이다. 가장 짧은 이 신탁들은 서두나 결어 양식이 정말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J. Limburg, "Sevenfold Structures in the Book of Amo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2 (1987) 222. 투커는 두로와 에돔의 심판의 이유가 유사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G.M. Tucker, "The Social Location(s) of Amos: Amos 1:3-2:16," in J.J. Ahn & S.L. Cook (ed.), *Thus says the Lord*, New York, London: T &T Clark, 2009, 276.

d. 에돔에 대한 심판(1:11-12)

열방에 대한 심판예언은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과 혈연관계에 있는 나라를 향한다. 그것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부터 시작한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이었다. 아모스 시대에 에돔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다윗 시대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삼하 8:13-14; 왕상 11:15-16; 왕하 3). 그러다가 여호람 때 독립했다(대하 21:8). 그 사이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적대적이었지만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부분 종속관계였다(창 25:22-23).

에돔의 죄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 자기 형제를 대적한 행위였다. 이 적대행위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침공 사건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여호람 때 독립을 위한 반란과 지속되었던 해묵은 불화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하 21:8, 10).[43] 특별히 여호람에서 독립한 이후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아랍 동맹군에 합세했을 것이다(대하 21:16-17).

그들은 형제에 대한 '긍휼'을 버렸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두로의 '형제의 계약"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고 혈육을 의미한다.[44] 형제애를 저버린 에돔의 유일한 목적은 죽이는 것이었다. 특별히 '좇아가다' (*rāḏaf*)와

---

43) J.R. Bartlett, "The Brotherhood of Edo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 (1977) 21.

44) 피쉬베인과 쿠트는 이 형제 관계를 '계약의 형제'로 바레는 '계약의 파트너'로 본다. 또 쿠트는 '그의 긍휼'을 '그의 계약의 자비'라고 번역하고 바레는 '그의 동맹'이라고 번역했다. M.A. Fishbane, "Treaty Background of Amos 1:11 and Related Matter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9 no 3 (1970) 313-318; R.B. Coote, "Amos 1:11: *RḤMYW*,"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0 no 2 (1971) 206-208; M.L. Barré, "Amos 1:11 Reconsidered,"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7 no 3 (1985) 420-427.

'버리다'로 번역된 šāḥaṯ (멸하다)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다. 특별히 '긍휼'을 모태(*rḕḥḕm*)라고 표현한 것은 에서와 야곱이 한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며 그 긍휼을 없앤다는 것은 감정적인 요인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형제애를 버리는 것에 적절한 용어가 된다. 에돔의 분노는 들판의 불과 같이 번져갔고, 형제 관계의 불화는 악화되었다.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불이었다. 데만과 보스라는 에돔의 고도인데 이것들이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다.[45] 데만은 남쪽에, 보스라는 북쪽에 있다. 이 양극의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이 심판이 에돔 땅 전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부분은 에서와 야곱간에 있었던 옛적 갈등을 연상시킨다. 비록 그들이 쌍둥이 형제지간 이었지만 에돔이 유다를 향한 지속적인 적대감은 끊이지 않았다(민 20:14-21). 이 갈등은 에돔출신인 헤롯왕이 야곱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유아를 살해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마2).

e. 암몬에 대한 심판(1:13-15)

암몬은 요단 동편, 북쪽 길르앗과 남쪽 모압 사이에 있었다. 이 예언에

45) 보스라는 에돔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 고고학적 발굴물에 의하면 이 도시가 주전 8세기부터 6세기 파괴될 때까지 상당한 번영을 누렸다는 것이 확인된다. Kenneth G. Hoglund, Edomites, in Alfred J. Hoerth, Gerald L. Mattingly & Edwin M. Yamauchi (eds.), *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 Grand Rapids, Mich: Baker Books, 1994, 339.

나타난 다른 민족과 같이 암몬도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다(창 19:30-38). 암몬의 죄는 길르앗의 임산부의 배를 가른 것이었다. 이들의 서너가지 죄는 국가적으로 만연된 만행이었다. 이 행위는 테러를 감행해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국경전의 일반적인 행위로 보인다(왕하 8:12; 15:16; 호 13:16). 이런 습격을 통하여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다. 암몬은 다른 팔레스타인 국가들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잘 연합하지 못해서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사사시대에는 종종 비옥한 길르앗 땅을 침략했다.[46]

본문은 자신의 팽창주의로 인해 길르앗의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가르고 자손을 멸절시키려는 암몬의 잔인성에 대한 심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만행은 고대 근동 문헌에도 가끔 나타나 있다. 한 중기 앗수르 노래는 티글랏 빌레셀 I(주전 1114-1076)의 섬뜩한 죄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임신한 여인의 모태를 가르고 그 유아의 눈을 파내고, 그들의 강한 남자들의 목을 잘랐다."[47] 또 신 바벨론의 한 애가에도 그런 참혹한 기록이 있다: "어머니의 모태가 갈라진 것을 ... 내 눈이 볼 수 없구나."[48]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적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모스 예언에서 지적된 암몬의 잔인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가 히브리 남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나 현대인의 낙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행위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암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랍바 성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사를 것이다.

---

46) Stuart, *Hosea-Jonah*, 314.

47) M. Cogan, "'Ripping open pregnant women' in light of an Assyrian analogu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3 no 4 (1983) 755-757.

48) W.G. Lambert, "A neo-Babylonian Tammuz lamen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3 no 1 (1983) 211-215.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이란 '야웨의 날'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49] 또한 '날'을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개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암몬의 주도시인 랍바가 대적의 공격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는 말이다.[50] 표현상으로 군사적 침략과 자연의 재앙으로 인한 심판으로 보이지만 여러 선지자들은 폭풍을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파괴적인 공격을 추상적으로 묘사했다(사 29:6; 렘 23:19; 나 1:3). 앗수르의 왕들도 자신에게 비슷한 이미지를 적용시켰다. 예를 들어, 아닷니나리 II (주전 1018-1013)는 "내가 바람이 맹습하듯이, 질풍으로 노할 것이다"라고 자만했다.[51]

암몬의 패배는 왕과 대신들이 사로잡혀감으로써 정점에 달할 것이다. 지도자들이 포로로 유배된다는 점에서 아람 백성이 유배되는 것과 다르다. 몇몇 고대사본에서는 몰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mlkm*)를 모압의 신인 밀곰(*milkōm*)으로 모음을 붙여 읽었다. 그러나 이런 모음표기는 뒤의 '그의 대신들'이란 말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암몬의 주도권은 느부갓네살이 랍바성을 점령하고 많은 거민들이 유배될 때 끝이난다. 이것으로 아랍 침입자들이 암몬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52] 아모스는 "여웨께서 말씀하셨다"란 표현으로써 자신의 메시지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f. 모암에 대한 심판(2:1-3)

모압은 암몬의 형제나라였다(창 19:30-38). 이 나라의 위치는 사해동편,

49) Paul & Cross, *Amos*, 80.
50) Stuart, *Hosea-Jonah*, 314.
51) Cf. Chisholm, *Interpreting the Minor Prophets*, 80.
52)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290.

남쪽의 에돔과 북쪽의 암몬 사이에 있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랜 기간동안 모압과 다양한 관계를 가졌다. 다윗왕은 자기 조상이 모압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심하게 다루고 지배했다(룻 4:17-22; 삼상 22:3-4; 삼하 8:2). 이스라엘은 오므리 통치시절 모압을 관할했으나 모압 왕 메사는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죽은 후 이스라엘을 배반했다(왕하 1:1;3:5). 이것은 메사의 석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53]

모압의 대표적인 죄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도 아니고 유다에 대한 죄도 아닌 것 같다. 모압의 죄는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 백성과 상관없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것은 모압이 에돔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이 이 문맥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잘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잔학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이례적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여기서 '에돔 왕의 뼈'를 단순한 속격으로 보지 않고 행위자의 속격(genetivus auctoris)으로 보는 것이다(cf. 사 66:16). 이때 그 뼈는 에돔 왕의 뼈가 아니라 에돔 왕이 죽인 유다 사람들의 뼈가 될 수 있다.[54] 그래서 모압은 건축자재인 회를 얻기 위해 에돔왕이 죽인 유다 사람들의 뼈를 불사른 일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뼈를 불사르는 것은 죽음에 대한 모독행위다. 제단에서 뼈를 태우는 것도

53) "그러나 오므리는 메하다바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그의 통치동안과 그의 아들의 통치기간 반, 사십 년간 머물렀다. 그러나 그모스가 그 땅을 내 시대에 돌려주었다. 그래서 내가 바알 마온을 건설하고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A.F. Rainey & R.S. Notley, *The Sacred Bridge*, Jerusalem: Carta, 2006, 211.

54) C. van Leeuwen, *Amos*, De Prediking van het Oude Testament, Nijkerk: Callenbach, 1985. 72.

제단을 더럽히는 수치스런 행위이다(왕상 13:2; 왕하 23:16-20). 뼈를 사르는 것은 고대근동에서도 가증스런 일이다. 페니키아의 아히람의 비문(주전 1200-1000)과 에쉬무나잘(Eshmunazar, 주전 300)이 묘지도굴을 경고했다: "나를 열지말라, 나를 분란케 하지말라, 이는 아스타르트에게 가증하기 때문이다."[55] 하나님은 죽은 자를 욕되게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하기에 장례를 명하셨다(신 21:22-23; 수 10:22-27).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한번 불로 묘사되었는데, 불이 요새들을 사르는 것, 요란함, 전쟁의 외침과 나팔 소리는 전쟁의 광경과 소리를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모압의 신전이 있는 그리욧의 궁궐들이 전쟁으로 멸망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와 관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정의에 대한 책임을 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학대한 나라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선포되었다.

5. 결어

아모스의 예언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열국에 대한 심판예언이 서두에 나타난 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기법을 위하여 배치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열국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포됨으로써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수사법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모스의 열국에 대한 심판은 내용적으로

55) Ibid. 71.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를 둔 심판이라는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창 12:3a). 이스라엘을 에워싼 나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유다를 괴롭히고 학대한 자들이다. 본문에서는 블레셋, 두로, 모압이 학대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이 단순히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결과로 아모스의 예언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이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약속에 신실한 분임을 나타내셨다. 이 심판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친히 만국과 만민의 하나님 됨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은 야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경고가 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 새 언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갈 3:29).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마 16:18).